에이즈균 "굶겨죽이는" 신약 임상실험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에너지원을 차단시켜 이들을 "굶겨죽이는"신약이 미국에서 개발돼 곧 임상실험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로운 형태의 에이즈 치료제 HE2000을 개발한 미국의 홀리스-이든제약회사는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이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 승인을 이미 받았으며 제1, 2단계 임상실험이 샌프란스시코 베이, 시카고, 휴스턴지역의 HIV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링크 부사장은 기존의 치료제들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곧 HIV의 변이에 의한 내성 발생으로 효과가 없어지는데 비해 HE2000은 HIV의 이러한 저항을 받지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 AFP=연합)

"100%완치 에이즈 치료제 개발했다"

아르메니아공화국의 과학자들이 최근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를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을 개발했다고 러시아 일간 브레먀지(紙)가 세르즈 사르키샨 아르메니아 내무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사르키샨 장관은 아르메니아 과학자들이 에이즈 및 인체 면역 체계에 관련된 질병을 100% 완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을 개발했으며 이번 주중 권위 있는 의료 및 학술 기관들이 신약 개발 사실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바=연합)

에이즈 환자별 맞춤치료 효과있다.

에이즈 환자별로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유전암호를 해독해 그 결과에 따라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제를 골라 투약하면 치료제에 대한 HIV의 끈질긴 저항을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뉴저지주 캠던에 있는 쿠퍼병원의 존 백스터 박사는 레트로바이러스-기회감염학회 6차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수시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치료제의 공격을 빠져나가는 HIV를 보다 확실히 공략하기 위해서는 각 환자의 HIV를 유전분석, 그 결과에 따른 맞춤치료법을 만들어 써야한다고 말했다. (시카고 AP=연합)

제왕절개 출산 신생아 에이즈감염 차단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임신 여성은 제왕절개출산으로 신생아의 HIV감염 위험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아동-인간 개발연구소의 소아과 전문의 제니퍼 리드 박사는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HIV에 감염된 여성이 아무런 의료 예방조치없이 출산할 경우 신생아의 15~25%가 HIV에 감염되지만 진통이 시작되기전 그리고 양수가 터지기전에 미리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10%로 줄어들며 여기에 에이즈 치료제인 AZT의 투여를 병행하면 2%까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스턴 UPI=연합)

에이즈치료 면역체계 재생이 최선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손상된 면역체계를 치료할 수 있다면 혈액속의 바이러스의 양이 두드러지게 떨어진 뒤 약물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에이즈 연구 학자들이 주장했다.

조지타운대학의 줄러아나 리스지에비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현재의 약물혼합요법은 HIV 바이러스를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시카고 AFP=연합)

'에이즈 수혈사건' 책임자 14년만에 법정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을 공급해 수백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에이즈 수혈 사건'의 최고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14년만에 법정에 섰다.

프랑스 법원은 이날 로랑 파비우스 전 총리(52·현 하원의장)와 조르지나 뒤푸아 전 사회장관, 에드몽 에르베 전 보건장관 등 프랑스 전직 핵심각료 3명이 관련된 에이즈 오염 혈액 수혈 사건 재판을 시작했다.

파비우스 전 총리 등 3명은 84~95년 사회당 정부 재임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오염된 혈액을 체계적으로 수거·관리하지 않고, 혈액검사를

DS NEWS

미뤄 많은 사람이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에 감염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염혈액으로 수혈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600명이 숨졌으며, 1,300명은 여전히 오염된 혈액수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99/02/09)

중국 에이즈환자 후원단체 첫 결성

HIV(에이즈 유발 바이러스) 양성반응 환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단체가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됨에 따라 한때 에이즈를 외국 질병으로 생각했던 중국 사회에서 HIV와 에이즈에 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이 단체 책임자가 밝혔다.

베이징(北京) 디탄병원에 본부를 둔 '레드 리본 클럽의 가정' 책임자인 수 케이 의사는 이 후원 단체 설립으로 중국에서 HIV 양성반응 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대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교도=연합)

러시아 에이즈 전염병처럼 확산 감염자 22만명 정부 지원 거의 없어

러시아에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러시아 일간코메르산트 데일리가 지적했다.

바딤 포크로프스키 보건부 산하 에이즈 예방 과학의료센터 소장은 국가두마(하원)와 정부 지도층이 승인한 정부 차원의 에이즈 예방계획이 있지만 3년동안 에이즈 예방을 위해 지원된 예산은 전혀 없었다면서 "현재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의 공식 HIV 감염자 수는 지난 87년의 24명에서 89년 339명, 93년 718명, 95년 1천61명, 97년 4천410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1천여명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스크바=연합)

짐바브웨 에이즈사망자 40만명 넘어설듯

짐바브웨는 올해 에이즈(AIDS) 사망자가 7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에이즈조정계획은 이로써 에이즈 전염이 시작된 이후 에이즈 사망자가 약 40만명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짐바브웨는 지난 85년 이후 총 1천200만 인구중 160만여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어린이 60여만명이 에이즈에 걸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고아가 됐다. (하라레 AFP=연합)

미 HIV감염 재소자들에 폐결핵 번져

애틀랜타에 본부가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주례 회보에서 캘리포니아의 교도소 2곳에서 HIV에 감염된 미국 재소자와 방문자 및 교도소 관리 등 32명에게 결핵이 전염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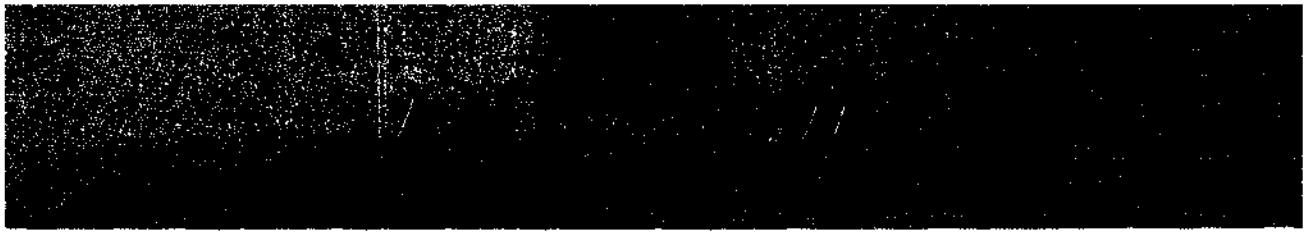
캘리포니아는 교도소내에서 폐결핵이 번짐에 따라 HIV 감염자들을 격리 수용하고 이들에게 결핵약을 제공하고 있다. (애틀랜타 AP=연합)

우간다서 에이즈백신 임상실험 18~40세 40명대상 2년간

우간다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에이즈 백신 임상실험이 시작된다고 우간다의 관영신문 선데이 비전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키후모로 아풀리 보건국장의 말을 인용, 18~40세사이의 자원자 40명을 대상으로 제1단계 에이즈 백신 임상실험이 2년에 걸쳐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용될 에이즈 백신은 프랑스의 파스퇴르 메리에 코노 제약회사가 개발한 vCP205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우간다는 세계에서 HIV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도시지역은 주민의 30% 지방지역은 10%가 HIV보균자들이다. (캄팔라 〈우간다〉 AFP=연합)

미성년자 퇴폐영업 뿌리뽑는다.

7월부터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시중이나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할 경우 업주에게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와에 고용 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위는 "최근 각종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으로 청소년 접대부들을 고용한 불법퇴폐 영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강력한 제재로 불법업소는 폐업이 불가피하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9/03/04)

혈액 팔고사는 행위 전면 금지키로

일본 후생성은 국내에서 혈액을 팔고 사는 매매혈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 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보도했다.

후생성의 이같은 조치는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과 매혈로 추출한 임파구 수액(輸液)의 암환자 투여 등이 문제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매혈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도쿄=연합)

태국서 대규모 에이즈백신 임상실험 감염위험 높은 2,500명 자진 참가

태국에서 앞으로 2~3주안에 에이즈백신에 대한 대규모 임상실험이 시작된다고 유엔에이즈기구(UNAIDS)가 발표했다.

UNAIDS는 이 임상실험에는 정맥주사용 마약을 상습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로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2천 500명이 자진해서 참가하게 되며 제3세계에서 대규모 에이즈 백신 임상실험이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제네바 AFP=연합)

24세이하 1분에 6명씩 HIV에 감염

24세이하의 세계청소년과 어린들이 매분 6명씩, 매일 8천500명씩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에이즈 교육이 시급하다고 유엔에이즈기구(UNAIDS)가 경고했다.

무방비 상태에서의 성행위와 마약의 정맥주사가 HIV에 감염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세계 청소년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새로운 캠페인 '듣고 배우고 생활하라'를 전개하고 있는 UNAIDS는 25세이하 연령층에 대한 집중 캠페인이 에이즈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제네바 AP=연합)

에이즈 바이러스 침팬지에서 왔다.

세계적으로 총 3천500만명이 감염돼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침팬지로부터 인간에게 이종(異種)전염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 앨라배마대학의 비어트리스 한 박사는 과학전문지 네이처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HIV가 아프리카에서 최소한 3차례에 걸쳐 사람에게 전염되면서 전세계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에이즈 전문학자 케빈 디코크 박사는 침팬지가 오랜 세월동안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일으키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면 지금 인간들에게 번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AP=연합)

장례식장서 AIDS 사망자 거부

홍콩의 장례식장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숨진 환자의 장례를 거부,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의 6개 장례식장들은 직원들이 에이즈 감염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에이즈 사망자를 장례식장에 들여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

홍콩 당국은 장례식장들이 전염성이 높은 결핵, 간염 등으로 숨진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도 에이즈 환자만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행위라고 말하고 자세한 경위조사에 착수. (홍콩=연합)

AIDS NEWS

애인이 떠나려 하자 에이즈 혈액 주사

미국 루이지애나주(州)의 한 의사는 애인이 떠나려 하자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혈액을 그녀에게 주사한 혐의로 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리처드 슈미드(48)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애인이었던 재니스 앨런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로 오염된 혈액을 주사, 그녀를 감염시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2급 살인 미수죄가 적용됐다는 것. (라파이엣〈미국 루이지애나주〉 UPI=연합)

HIV 약화시켜 만든 에이즈 백신 위험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약화시켜 만든 에이즈 백신은 오히려 에이즈에 걸리게 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대나 파버 암연구소의 루스 라프레히트 박사는 의학전문지 네이처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 짧은꼬리원숭이 대상으로 원숭이 면역결핍 바이러스(SIV)를 유전적으로 약화시켜 접종한 결과 일부가 SIV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뉴욕 AP=연합)

88년 노벨의학상 엘리온 사망

핵산의 합성과정을 규명,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개발을 가능케한 공로로 88년 노벨의학상을 공동수상한 거트루드 엘리온박사가 노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81세.

1944년부터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 글락소 웰컴사의 선신인 버로즈 웰컴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엘리온 박사는 공동연구자인 조지 히칭스박사와 함께 77년 각종 세포내에서 이뤄지는 핵산의 합성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핵산합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바이러스 억제제를 만들었다. 의학계에서는 이 발견을 토대로 AIDS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아지도티미딘(AZT)을 개발하게 됐다. (한국일보 99/02/26)

과학 한림원 최연소 정회원 피터김교수

"지난 20년간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변화가 지금 생물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가 5년 안에 완성되고, 생명과학 분야가 빠르게 융합하면서 생명현상의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기초과학은 그 기반이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전무식) 정기총회에서 만 40살 나이의 최연소 정회원으로 선출된 재미동포 과학자 피터 김(한국이름 김성배 ·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생물학 교수 · 사진)은 "기초과학은 앞으로 더욱 희망적일 것이란 점을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인 과학자 가운데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의 하나로 꼽히는 그는 93년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하는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밝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코알 모양의 구조를 이룬 바이러스 단백질의 일부가 작살처럼 사람 몸의 세포쪽으로 튕겨나가면서 바이러스와 인체세포의 막이 융합한다는 '용수철 메커니즘'이 그것이다. 97년엔 에이즈 바이러스도 같은 방식으로 인체에 침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다른 바이러스도 비슷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렇고,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과정도 마찬가지란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그는 미국 생화학 · 단백질학 분야의 갖가지 상을 받았으며, 97년엔 30대 나이로는 드물게 미국과학 아카데미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요즘 자신의 실험실에서 에이즈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생백신 대신에, 에이즈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단계를 차단하는 새로운 개념의 백신이 될 것"이라며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간염 백신과 같은 에이즈 백신의 출현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9/02/26)